

그린뉴딜 선도...광주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 본격화

내년까지 빛그린산단에 493억원 투입...3만㎡ 규모 부지매입 완료·실시 설계...청정 대기기술 개발 기대

광주시가 세계 녹색산업 시장을 선도하고 한국판 그린뉴딜을 이끌어갈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광주 빛그린 산업단지 내에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부지매입을 완료했으며, 올해 공사비 142억원도 환경부 본예산에 확보했다. 시는 올해 기본·실시 설계를 거쳐 2023년까지 국비 493억원을 투입, 빛그린 산단에 3만㎡ 규모 클러스터를 조성할 방침이다.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는 국내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으로 꼽히는 산업, 수송분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유발물질 감소를 위한 주요 기술을 개발하고, 지원시설을 집적화해 관련 기업이 현장에서 실제 적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산업, 수송분야의 오염물질 배출 저감기술과 측정기기 실증단지 등 육성허브를 구축해 소재·

부품·장비 국산화, 개발 기술 제품-산업화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게 된다.

광주시는 그동안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적 광주유치·조성을 위해 부지매입 등 행정절차를 지원했으며, 2020년 4월부터 11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일자리 창출 2807명, 준비단계 749억원, 운영단계 2349억원 등 3098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석웅 광주시 환경생태국장은 "최근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산업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부품·장비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관련 산업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며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를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22일 오후 광주시 첨단3지구 AI집적단지 조성사업 현황을 방문한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왼쪽에서 세번째)이 임차식 인공지능산업융합 사업단장과 정민곤 광주도시공사 사장 등으로부터 사업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듣고 있다.

전남도, 러-우크라 사태 피해 기업 지원

중기·농수축산·운수업 등 6개 분야 668억

전남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중소기업과 농수축산·운수업 등 6개 분야에서 모두 668억원을 긴급 투입하는 종합지원 대책을 22일 발표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비대면 브리핑을 열고 "전남도는 수입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조선, 석유화학, 철강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농수산업과 운수업은 유류비 의존도가 높아 도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클 것"이라며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피해 중소기업과 농수축산업, 운수업 등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수출길이 막혀 직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위해 금융과 해외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주요 지원사항은 ▲물류비 10% 추가 지원 ▲수출보험료 지원 500만 원까지 확대 ▲수출 대체 시장 발굴 지원 ▲기업당 3억 원의 특례보증 ▲긴급 경영안정자금 기업당 3억 원까지 지원, 이미 지급된 자금의 상환유예 및 만기 연장 등이다.

피해기업의 지방세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간 연장하고, 체납액 징수와 체납재산 압류·매각도 최대 1년간 유예한다.

유가 상승과 사료 가격 폭등으로 어려운 농수축산 어민과 운수업자 대책도 마련했다.

농어가 면세유 유류비 인상액의 50%인 183억원

을 도와 시군이 함께 지원한다.

축산농가를 위한 사료구매자금을 지난해보다 100억원 추가 지원한다.

사료작물 재배면적을 1만 1000ha 확대하고, 56억원을 추가 보조한다.

유가 상승으로 경영손실이 큰 버스업계에는 손실 노선 재정지원금 70억 원을, 3월 중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설 명절에 50%인 140억 원을 집행한 데 이은 2번째 조치다.

전남도는 이번 자구책과 별도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과 지원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주요 건의 내용은 사료 가격 상승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축산농가를 위해 '배합사료 가격 안정화 기금' 2조 원 이상 조성, 사료구매자금 금리 인하, 농기계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등이다.

양식어가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줄 '해수열 히트 펌프 보급사업'과 어선어업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의 추가 지원도 요청하기로 했다.

유가상승으로 '멈춤 위기'에 빠진 운수업계를 위해 유가보조금 상환을 통한 손실액 특별지원과, 석유화학의 핵심 원자재로 제품의 국제가격을 좌우하는 나프타에 대해 한시적 긴급할당 관세 0% 적용도 건의할 방침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 미래 산업 'AI' 국정 과제 채택 기대감

윤석열 당선인 공약...과기부 차관 집적단지 조성 현장 방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지역 대표 공약 사업지인 인공지능(AI) 집적단지 조성 현황을 방문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면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 채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22일 광주 첨단3지구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AI 집적단지) 조성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조 차관은 이날 임차식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으로부터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이자 인공지능 국가 전략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AI 집적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았다.

AI집적단지 조성 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11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인공지능(AI) 융합을 촉진하고 데이터센터 등 각종 인프라·기업·인재·기술 등을 집약, 인공지능 융합 생태계

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2023년 AI 집적단지 준공을 목표로, 올해 AI 특화 데이터센터를 완공할 예정이다.

이날 사업 현장을 방문한 조 차관은 "광주 AI 집적단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국가 인공지능 혁신 거점으로 발전해나가고 있다"며 "인공지능산업은 AI 전문 인력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광주가 최첨단 국가 인공지능 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지역 현안사업 새 정부 건의활동 속도

인수위 국정과제 채택, 부처 내년 국고사업 반영 통한 계속사업 온힘

전남도가 지역 미래 발전을 이끌 '옴nipotential 미래전략'을 비롯한 현안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채택되도록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대상으로 신속하고도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는 22일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장 정책회의를 열어 인수위의 새 정부 5년 설계와 정부의 내년 국고예산 수립이 동시에 이뤄지는 중차대한 시점임을 감안, 인수위 대응과 국고예산 확보 활동에 온힘을 쏟기로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인수위원회 국정과제 초안 작업이 이달 안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이 단계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전략사업이 최대한 많이 반영되도록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수위 활동도 중요하지만, 전남 현안이 현 정부 예산에 반영되면 새 정부에서도 계속 연계해서 추진하게 되므로, 각 부처 예산에 전남 국고사업을 반영시키는 노력도 함께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또 "각종 국고 공모사업 유치를 위한 전략

적 접근노력도 동시에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의 단계적 일상화에 대비한 관광산업 활성화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시의적절하게 추진해온 2022-2023 전남도 방문의 해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고, 국토 서남권의 국제 관광인 무안 국제공항을 활성화할 특단의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산물 가점간편식 산업 육성과 관련 "최근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 증가로 가정간편식 시장이 확대되는 추세"라며 "창업지원정책에 수산 분야도 포함시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 소위 '당일택배'와도 연계해 소비자가 손쉽게 주문해 받아보도록 하는 등 제품 개발부터 판로까지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전국 3대 명당으로 꼽히는 보성을 아십니까?
그 곳에 수목장이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이장부터 안치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1522-9341